

# 김수미·백지영·제시 SBS '텔레그나' 게스트도 화려

신개념 PPL 버라이어티…27일 첫 방송

수익금·PPL 상품 기부…선한 영향력

SBS 신개념 PPL 버라이어티 예능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이하 '텔레그나')에 초특급 게스트들이 대거 합류한다.

여름 시즌에 맞춰 '서머 에디션'으로 돌아오는 '텔레그나'는 유세윤, 양세형, 장도연, 김동현 네 멤버의 더 강력해진 코믹 캐미와 함께 매회 게스트들이 등장해 착한 PPL 완판에 나선다. 게스트들

의 면면은 화려하다.

'빈찬계 대모'에서 결죽한 예능 감으로 PPL까지 접수하려 온 배우 김수미, '텔레그나' 파일럿 방송에서 '논산 딸기 일시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가수 김재환, 막강한 입담으로 예능계를 접수했던 배우 김수로, 가요계 대표 '센 언니' 가수 제시, '부부의 세계' OST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백지영, 요즘 '대세 보컬'이자 버라이어티 예능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크러쉬가 '텔레그나' 게스트 리안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예능에서 겹중된 김수미, 김수로는 물론 음악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가수 크러쉬 등 예상치 못한 게스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 '텔레그나' 멤버들과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밖에 백지영과 크러쉬는 '텔레그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콜라보 무대도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최근 진행된 첫 촬영



에서 멤버들과 게스트들의 호흡은 기대 이상이었다.

매회 게스트들이 기상천외한 PPL 미션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큰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

으로 공개될 게스트들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나'는 'PPL'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색다른 상상력에서 출발한 국

뉴스 1

## 이순재 "실망끼쳐 죄송…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다"

소속사, "많은 부분 사실과 달라…왜곡·편파보도 됐다"



이순재가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이순재는 지난 1일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가 밝표한 전 매니저의 갑질 의혹 제기와 관련 한 차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본인을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은 살아온 인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순재의 사과와 함께 전 매니저가 주장한 '마음살이' '갑질' 표현은 실제에 비해 많이 과장되어 있다면서 "배우(이순재)의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부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고 있고 로드매니저에게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라고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은 전혀 없으며 '하드웨일'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심부름은 당연히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드매니저는 자신이 드나들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 부부는 로드매니저들이 사적인 공간에 드나든다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하여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하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라며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처 입은 해당 로드매니저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회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29일 '8뉴스'는 원로배우 A씨의 매니저 B씨가 일을 하던 두 달 동안 A씨 가족들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같은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A씨가 이순재로 밝혀져 과장이 일었다. 이순재의 전 매니저 B씨는 자신의 업무가 이순재의 집 쓰레기 분리배출, 이순재 아내가 시키는 접다한 심부름이었고 막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두 달 동안 휴일이 5 일이었고 주 55시간을 넘게 추가 근무 수당은 캐당 월 180만원이 급여의 전부였으며 부당한 노동환경 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달 6월 30일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1 차 입장문을 내고 "이순재와 관련한 지난달 29일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보도됐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2PM 우영, 애장품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훈훈한 선행



그룹 2PM 우영이 애장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

우영은 지난달 6월 26일부터 박

스 337(BOX 337)을 통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영은 "평소 기부에 대해 쉽지 않은 벽을 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번만큼은 편안하게 그 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됐다"라며 선행에 동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예정하는 물품이다 보니 어떤 분께 전달이 될지 궁금하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마르셀로 불론' 디자이너의 티셔츠, 영화 '민주' OST LP

와 '미스터 브레이브' 작가의 킥 등 애장품 3점을 기증했다. 우영의 애장품 이벤트는 오는 15일 까지 박스 337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 전액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박스 337은 셀럽과 팬이 함께하는 신개념 기부 웰빙지를 진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기부된 물품의 판매 수익 100%는 셀럽의 이름으로 단체에 전달된다.

한편 우영은 2018년 9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올해 2월 28일 전역했다. 이후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활동 중이다.

## 안영미, 미디어랩 시소와 전속계약…송은이 품에 새둥지

내일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서 기념 영상 공개

방송인 안영미가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랩 시소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미디어랩 시소 측은 1일 "안영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셀럽파이브 멤버들이 송은이 신봉선 김신영과 한솔밥을 먹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텐츠랩 비보'에서 설립한 미디어랩 시소는 대표 송은이를 비롯해 신봉선과 유재환 그리고 김신영이 소속돼있다. 안영미는 미디어랩 시소의 5호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셀럽파이브 멤버 전원이 하나의 소속사로 통치면서, '미디어

미디어랩 시소에 먼저 소속된 신봉선과 김신영이 안영미의 소속사 이적을 두고 아티스트 겹증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랩 시소 측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밸류의 실력을 발휘해온 안영미와 함께하게 된 것만으로 막강한 에너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안영미가 여러 방면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일 수 있도록 미디어랩 시소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셀럽파이브 활동에 큰 전환점을 선사한 안영미와 즐겁고 기운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생충' 박명훈, '리미트' 합류…이정현·진서연과 호흡

배우 박명훈이 영화 '리미트'에 출연을 확정했다.

지난 1일 에이스파크토리에 따르면 박명훈은 '리미트' (감독 이승준)에 합류한다.

'리미트'는 사상 최악의 유괴 사건의 비밀 위장 수사에 투입된 생활안전과 경찰 소은(이정현 분)이 유괴범과의 쫓고 쫓기는 강렬하고 치밀한 심리 드라마를 보여줄 범죄 스릴러다.

박명훈은 극 중 유괴 사건과 연관 된 핵심인물 준용으로 분한다.

'기생충' (감독 봉준호)을 통해 2019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과 제56회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명훈은 '기생충' 이후 충무로로부터 끊임 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활영을 마친 작품으로는 '경관

의 꾀' '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보이스' '휴가'가 있으며, 활영을 앞두고 있는 영화 '비활'까지. 연이은 캐스팅 소식을 알리며 명실상부 춤무로 대세로 떠올랐다.

범죄 스릴러 속 박명훈이 어떤 새로운 얼굴로 등장할지 기대감을 준다.

한편 '리미트'는 올여름 크랭크인 예정이다.

## 듀오 사이로, '소원이 없겠다' 티저 영상 공개



듀오 사이로가 컴백을 앞두고 청량감 넘치는 티저 영상을 선보였다.

지난달 30일 하이업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이로의 새 디지털 싱글 '소원이 없겠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사이로는 애청인 '훈남 듀오' 다운 훈훈한 비주얼을 뽐내며 '아이돌 포스'를 풍기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에 신곡 '소원이 없겠다' 일부가 삽입돼 더욱 기대감을 높였다.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하고 청량감 넘치는 멜로

디는 물론이고 조현승, 장인태 두 사람의 세련되고 신뜻한 보이스까지 잘 어우러져 보고 듣는 즐거움을 더욱 극대화시켰다.

사이로의 신곡 '소원이 없겠다'는 국내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 블랙아이드필승이 결성 아래 처음으로 남성 듀오 곡 프로듀싱에 참여한 과정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블랙아이드필승의 애정이 듬뿍 담긴 작품인 만큼 더욱 완성도 높은 노래로 탄생돼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그간 발라드곡 위주의 활동을 펼쳤던 사이로는 '소원이 없겠다'를 통해 한층 더 밝고 풋풋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컴백을 앞둔 사이로는 "우리 따뜻했던" 이후 4개월 만에 신곡 '소원이 없겠다'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돼 기쁘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이로의 모습을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이로의 신곡 '소원이 없겠다'는 레게를 베이스로 한 알엔비 힙합곡으로, 떠나간 연인을 하루만이라도 잊어버리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재치있고 귀엽게 표현한 노래다. 여기에 최근 가장 활한 래퍼로 평가받는 나플라가 피처링에 참여해 사이로와 완벽한 '케미'를 탄생시켰다. 또 사이로는 과거 대한민국 가요계를 훨씬했던 2인조 알엔비 그룹이었던 브라운아이즈의 뒤를 잇는 완성도 높은 음악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내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사이로는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조현승, 장인태로 구성된 동갑내기 듀오다. 1997년 4월 15일생 두 멤버가 운명적으로 만나 '사이로'를 결성했다. 두 멤버 모두 보컬과 작곡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그룹인 사이로는 데뷔 싱글 '그때, 우리 사랑했을 때'로 가요계에 등장해 꾸준히 활동 중이다.